

상징적 폭력과 낙인화의 지형

— 이순의 소설에 나타난 1970년대 학교

이 상 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급진적 산업화와 유신체제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작가 이순의 학교소설에 나타난 교육 현장의 규율 기제와 상징적 폭력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1970년대 여성작가로서 독자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순은 1970년대 여학교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섬세하게 서사화했다. 서구의 문화자본과 아메리카니즘이 유발한 일그러진 계층상승 욕망과 내면화된 식민주의를 냉소적으로 폭로하고(「외인학교」, 「보이지 않는 사람」, 「해몽이」), 이식된 위생 근대성과 시혜의 폭력 속에서 구조적 빈곤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되고 계급적 낙인으로 변질되는 학교 현실을 그렸다.(「화장지」, 「담임선생님」) 또한 국가주의적 규율 권력 하에서 체제에 공모하면서도 일상의 균열을 통해 저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교사의 복합적 위치를 재현했다.(「영하 4도」) 이 학교소설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은 무력하고 수동적인 교사이자 기만적 지식인이지만, 반성적 자아와 대립하는 내면 서술을 거쳐 지연된 자각에 이른다. 그 결말부에 반복되는 ‘지연된 자각’은 내부자 교사로서 느꼈던 역사적·윤리적 부채감을 고백하는 자기성찰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순의 학교소설은 여학생과 여교사가 약자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공모와 저항, 희생의 서사를 통해 학교라는 미시적 제도 공간의 상징적 폭력을 고발하고, 여성의 시선에서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1970년대 한국 여성 소설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이순, 1970년대, 학교소설, 아메리카니즘, 규율 권력, 통제, 상징적 폭력, 지연된 자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목차

1. 1970년대 학교소설, 내부자의 시선
2. 서구 선망과 일그러진 욕망
3. 시혜의 폭력과 낙인의 가시화
4. 유신체제하의 학교, 규율과 통제의 공간
5. 공모와 저항, 지연된 자각

1. 1970년대 학교소설, 내부자의 시선

1970년대는 확고한 개성으로 문학사에 자리매김한 여성작가들이 등장하고, 여성의 자기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소설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증가 속에 등장한 이른바 ‘중산층 여성작가군’은 1970년대 여성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¹⁾ 소설가 이순(1949-2020)은 이 시기에 활동한 전형적인 중산층 지식인 여성작가 중 하나이다. 월남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여 대학교수가 된 지식인이며, 창작 통로를 개척하고 인정받고자 부단히 노력한 자의식 강한 직업 작가였다. 1972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외인 학교」가 당선되어 등단한 후, 198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소설 창작을 했으며, 한국문학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수필가이자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을 펼쳤다.²⁾ 그러나 1986년 9월 뇌막염으로 쓰러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020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³⁾ 이순은 약 15년간 단편 23편, 중

1) 이선옥, 「1970년대 여성문학-여성전업작가의 등장과 다양한 글쓰기 주체의 성장-」, 『개념과 소통』 26, 한림과학원, 2020, 78-79면.

2) 이순은 여성과 사회, 교육 등에 대한 글을 다양한 매체에 게재했고 이를 『제3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묶어 출간했다. 1985년에는 TV의 문학 대담 프로그램(〈차 한잔을 나누며〉, KBS 제1TV)을 진행하기도 했다.

3) 이순은 1972년 기자이자 소설가로 활동한 한남철과 결혼했다. 한남철은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진 편집자이자 문학 기자였으나 1980년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외부 활동을 접고, 그 대신

· 장편 9편, 두 권의 에세이집을 남겼지만, 창작 중단과 함께 문단과 학계의 관심에서 오랫동안 잊혔다.

이순은 월남 가족의 불행한 역사, 여학생의 성장과 학교 이야기, 전통적인 대가족의 일상, 고학력 여성의 성취와 분열된 욕망, 좌절 등을 소설에 담았다. 주로 현모양처 규범과 자기실현, 계층상승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 가족의 일상과 세태를 간결하고 실감 나게 담아내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세련된 문장, 풍자적 어조, 재치 있는 구성을 통해⁴⁾ 소재주의를 넘어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준 작가⁵⁾로 인정받았다. 대개의 연구는 당시 조명받았던 연작소설 『우리들의 아이』에 집중되어 있다.⁶⁾ 모두 여덟 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의 주인공은 주로 대가족의 생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중산층 진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만며느리이자 교사로 등장한다. 핵심 메시지가 담긴 표제작 「우리들의 아이」는 가족의 혈연적 경계를 넘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공동체적 시선을 강조하고 건강한 사회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⁷⁾ 공동체적 시선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강조는 여교사였던 이순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1970년대 여성 문학사에서 이순이 지닌 특별함은, 교육 현장의 내부자

생계를 책임진 이순의 창작에 조언하는 등 외조를 했다. 이순이 쓰러지자 간병을 도맡아 하다 1992년 간경화로 사망했다. (김명래,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 23」 한남철 ‘바닷가 소년’, 『경인일보』, 2014.7.3.) 이순의 사망 사실은 유족 한기웅(아들)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2020년 요양원 입원 중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한다.

4) 백승철, 「이순 섬세한 문장과 재치있는 구성」, 『한국단편문학전집』 27, 금성출판사, 1990, 462면.

5) 이광훈, 「반짝이는 언어의 연금술」, 『소설문학』, 소설문학사, 1980.8, 155면.

6) 김병익, 「소시민의 소박한 꿈 : 가정소설의 의미」, 『우리들의 아이』, 문학과지성사, 1981. ; 전해자, 「계절샤프트 속의 가족공동주의 - 이순의 우리들의 아이를 중심으로」, 『인문언어』 2, 국제언어인문학회, 2002.; 박미진·이혜령, 「이메일 해설- 우리 시대 여성 정체성 탐구」, 『오정희 김채원 외』, 창비, 2005.; 이상진, 「이순의 『우리들의 아이』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계층 이동 욕망」, 『현대문학의 연구』 8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7) 이상진, 「이순의 『우리들의 아이』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계층이동 욕망」, 앞의 논문, 189면.

로서 당대 학교와 교육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을 창작했다는 점에 있다.⁸⁾ 이순이 학교 교육을 받았던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은 중산층 진입을 위한 계층간 ‘구별 짓기’와 학력자본 획득 경쟁이 심했다. 이순이 교단에 선 1970년 중후반의 학교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진학에 따른 학교 과밀화로 학생들은 철저한 통제 속에서 교육받고,⁹⁾ 재정문제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으며, 군사정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이순은 이 시기에 여학생(「나뭇가지 위의 전등불」, 「해봉이」), 대학원생(「부자실습」, 「지하도시」), 여학교 교사(「화장지」, 「영하 4도」, 「담임선생님」), 한국어 교사(「외인학교」, 「보이지 않는 사람」)로서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내부자의 시선에서 섬세하게 서사화했다. 이 중 일부는 성장소설로서의 문학사적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으나,¹⁰⁾ 몇몇 단편을 제외하면 본격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작가들 작품 중 당시 교육 현장의 치열한 경쟁을 소재로 삼은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나 주로 학교 바깥의 성인 여성(모성)의 시선에서 포착한 문제, 즉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이른바 ‘치맛바람(허욕에 찬 모성)’¹¹⁾이나 과도한 교육열, 계층 갈등이 그 중심 주제이다.¹²⁾ 1970년대 중등

8) 이순은 연세대학교 국문과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소설을 전공했다. 석사학위 취득 후, 연세대 한국어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했으며,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동대문구의 중학교(영란여중)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다.(이순, 「글씨 많이 늘었나」, 『제3의 여성』, 어문각, 1983, 196-197면) 1981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1984년 현진건론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청주대 문리대 국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9) 다인수 과밀학급은 수업 진행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통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자율보다 타율적이 되고, 권위에 묵종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김중서, 「다인수(多人數)·과밀학교 및 학급의 문제」, 『새교육』, 1976. 2. 29면, 김영일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 1970년대』, 창비, 2016, 54면에서 재인용.

10) 최원식은 당대의 ‘엄중한 상황’ 때문에 성장소설이 평가절하되고 있으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성장소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순의 성장소설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최원식, 「성장소설의 가능성」,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21 - 이순』, 양우당, 1991, 451-452면.

11) 서나래, 「자모들의 치맛바람 : 1960년대 교육계 이슈와 어머니 표상」, 『한국교육사학』 44,

교육과 청소년의 표상을 서사화한 작품과 연구 결과로 넓혀보면, 크게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의 일상과 학교생활을 그린 이른바 하이틴로맨스 소설군이고, 하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외된 여공이나 호스티스, 식모 등 서발턴(subaltern) 여성을 재현한 소설군이다. 전자는 학생 독자를 위한 잡지 『학원』과 『여학생』 등에 주로 게재된 이른바 ‘청소년 소설’들인데, 젠더 문제와 세대적 감수성의 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여성)성장 서사로서의 중요성이 주로 지적되었다. 후자는 1970년대 이후 문학과 비평계가 가졌던 거시적 담론, 즉 계급·국가주의·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크게 주목받았다. 본 연구의 문제제와 연결해 볼 때, 전자의 로맨스·성장 서사는 학교 공간을 낭만화하고 탈정치화하여 보고 후자는 학교와 서발턴의 노동공간을 나누고 계급적으로 구별 짓기 함으로써, 그 경계에 있었던 빈곤층 학생들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살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¹²⁾ 한 마디로 경제적 계급과 교육 기회를 기준으로 여성들 내부를 철저하게 분절하고 위계화했고, 그 결과 학교라는 미시 공간 내부에서 자행되던 통제와 감시, 제도적 폭력은 우리 문학사에서 담론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육사학회, 2022.

- 12) 대표적인 예로 박완서의 교육세대 소설을 들 수 있다. 박완서의 「꼭두각시의 춤」, 「낙토의 아이들」, 「세모」에는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신분상승의 욕망, 경쟁 구도 및 일그러진 교육 현실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홍인영, 「박완서의 1970년대 교육 세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읽기 교육 연구」, 『우리말글』 106집, 우리말글학회, 2025.) 이순의 데뷔작 「엄마의 교습」과 『우리 언니』 연작에도 영어교육 열풍, 과도한 모성, 촌지 문제 등이 나타나나, 나머지 작품은 이와 결이 다르다.
- 13) 이 점에서 신경숙의 『외판방』이 1970년대 ‘여공(서발턴)’이자 ‘학생’이었던(이 될 수 있었던) 여성의 이야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야간학교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당시 10대들의 성장공간이 되었던 노동공간과 제도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이순의 「담임선생님」에 등장하는 학생(향이)이 등록금 상습적 미납자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후 결국 공장노동자가 된 내용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학생과 서발턴의 경계에 있었던 가난한 어린 학생들이, 구별 짓기와 학력 경쟁이 난무하던 학교에서 받은 인권 유린과 상징적 폭력도 서발턴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970년대의 학교는 서구 선망의 지배구조와 계급 질서가 정당화되는 상징적 폭력의 장(場)¹⁴⁾이자, 학생들을 통치이념에 ‘순종하는 신체’¹⁵⁾로 길러내고자 한 규율과 통제의 장이었다. 그러나 “학교라는 현장 자체가 갈등의 근원이 되는” 학교 소설¹⁶⁾, 제도권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문제에 주목한 작품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이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로 대표되는 남성 작가들의 학교 소설이 주목받은 바 있지만, 대체로 파시스트적인 교장 혹은 교사가 등장하여¹⁷⁾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교실을 현실사회의 권력 구조를 비추는 알레고리로 치환하여 읽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와는 달리, 이순의 학교소설은 학교에서 상대적 약자로서 불안한 위치에 있으면서 때로 공모하고 저항하며 희생되는 여교사와 여학생의 이야기로서, 학교 공간 내부에서 작동한 국가 통제와 규율 권력에 젠더 문제를 겹쳐 읽게 하는 특별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순의 학교소설을 대상으로 당대 시대적 특수성과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외인학교」, 「보이지 않는 사람」, 「헤봉이」, 『마지막 여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서구 선망과 상징 폭력의 양상을 분석하고 오인을 자각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어, 「화장지」와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학교 내부에서 가시화되는 낙인과 소외, 문화지체 및 계층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14) 김영화,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교육과학사, 2020, 113면.

15) 미셸 푸코는 학교와 병원, 감옥, 병영(군대), 공장을 근대사회의 규율권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통제기관으로 꼽았다. 그는 감시는 신체의 힘을 분리시켜 효율 측면에서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고, 복종이라는 정치적 관계에서 힘을 감소시킴으로써, “순종하는 신체”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183-187면.

16) 이태숙, 「분단의 이데올로기와 교육장으로서의 학교-전상국의 학교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3, 국어국문학회, 2015.

17) 이동재,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교육 현장과 교사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234면.

으로 유신정권의 압제 속에서 행해진 일방적 규율과 통제 메커니즘을 보여준 문제작 「영하 4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교사이자 작가로서 이순이 남긴 무력한 행동과 반성적 성찰의 기록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살피고, 1970년대 여성작가로서 이순의 독자적 위치를 밝히고자 한다.

2. 서구 선망과 일그러진 욕망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은 미국의 교육 원조와 함께¹⁸⁾ 서구 문화가 대중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 1970년대 교육은 계층이동을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졌는데, 기저에는 맹목적인 서구화라는 일그러진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순의 학교 소설에는 이런 계급 질서를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공모하는 상징적 폭력¹⁹⁾의 양상이 나타난다.

등단작 「외인학교」(1972)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희경)’가 초등학교생, 대학생, 외인학교 강사로 등장하는 세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칫솔〉의 배경은 1950년대 중후반 미군의 원조와 영향 아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미국식 위생교육 현장이다. 매주 미군 장교가 방문하여 양치질 교육을 하고, 교사는 한복을 입고 양치질 노래까지 만들어 서구의 위생

18) 한국전쟁으로 황폐화 된 상태에서 미국의 교육 원조는 ‘사람(전문가의 지식)’, ‘물건(시설, 비품, 교재, 교구)’, ‘돈(자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의 교육기관들은 미국의 교육이론과 방법론들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미국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이창익,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교육원조와 교육계의 동향」, 연세대 석사논문, 2005, 71면.

19) 부르디외와 파세롱은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관계는 상징적 지배와 종속에 의해서도 유지된다고 본다.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은 힘의 토대인 권력관계를 은폐한 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교육체계는 학교위계제가 사회위계제를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계급 구조를 영속시키고 이를 정당화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장 클로드 파세롱, 이상호 옮김, 『재생산 :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2003, 20면, 236면.

제도를 선진적이고 우월한 것처럼 보조하는 풍경이 묘사된다. 아버지가 이 소도시의 고위공무원인 ‘나’는 가난한 피난민 아이들과 차별성을 증명하고자 집에서 쓰던 고급 칫솔을 가져간다. 그러나 미군 장교는 이를 암매로 산 것이라 오해하여 부모에게 곤욕을 치르게 만든다. 〈졸업 파티〉는 대학생이 된 ‘나’의 이야기이다. ‘나’는 대학에서 영어는 물론 미국 문화와 매너를 배우려 애쓰지만, 교환학생으로 온 제인은 오히려 미국화를 계급의 척도로 여긴다고 비판한다. ‘나’는 제인의 이브닝드레스까지 빌려 입고 졸업파티에 갔지만 귀갓길에 버스를 타다 넘어지고, 비아냥대던 남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병글거리는 제인의 모습, 칫솔을 뺏어 든 미군의 환영이 겹쳐 떠오른다. 〈외인학교〉는 1970년대 초 주한 외국인 2세를 가르치는 학교 강사가 된 ‘나’의 이야기다.²⁰⁾ 외인학교 신입 강사 고선생은 교양 없는 행동과 언행으로 동료 선생의 반감을 사고 불화를 빚다가, 결국 영어와 국문법에 능통한 후임자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 그는 마지막에 어린 시절 양치질 교육을 받다가 달콤한 치약이 아까워 삼켰다가 부잣집 아이에게 들켰던 기억을 고백한다. ‘나’는 고선생이 어린 시절 피난민학교에서 그토록 구별하고 싶었던 가난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 이야기는 전후 미국의 원조체제와 무비판적인 서구 선망, 그리고 구별짓기의 욕망이 남긴 심리적 흉터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보여준다. 그 중심에 있는 ‘나’의 기만적 태도와 일그러진 욕망은 구조적 반전을 통해 비판된다. 세 편 모두 기대하고 준비한 것이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일로 어그러지는데 이는 웃음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희극적 전략의 하나이다.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 후, 마지막 편에서 강력한 자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자기풍자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외인학교 강사로서 자격 미달인 고선생과 구별짓기에 성공했다고 믿는 마지막 장면이다.

20) 이순은 한국어학당과 미대사관, 평화봉사단 프로그램에 파견되어 강의한 경험을 밝힌 바 있는데, 소설에 재현된 것과는 달리 에세이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순, 「봉의 산 기슭, 폭풍의 언덕」, 『제3의 여성』, 어문각, 1983, 208면.

그러더니 우리가 무슨 내기를 할 때 손끝으로 툭 쳐서 그렇게 하듯 팽이처럼 뱅뱅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블론드의 사내아이도 불쑥 그 놀음이 생각났는지 구두발로 들고 있는 동전을 콕 덮쳤다 뺏다. 그리고 곧 와악하고 함성을 울리며 “마이 위인(my win-내가 이겼다.)” 했다. 그리고 그 제서야 부실부실 몸을 일으키는 고선생에게 상당히 “오 아이 엠 쏘리 티쳐”했다. 느닷없이 나는 〈제인〉의 눈빛을 상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칫솔과 이브닝드레스를.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서양아이의 구두 끝에서 반짝거리는 동전을 바라보았다.

(5)라고 숫자가 새겨진 아주 새 것이었다.²¹⁾

해고된 고선생이 마지막으로 받은 시급을 가지고 나가다 동전을 떨어뜨리자, 서양아이가 장난처럼 발로 덮치며 “내가 이겼다.”라고 외친다. 당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분명한 위계, 그 본질이 폭로되는 장면이다. 즉, 서양(미국)이라는 지배 권력 앞에서는, 미국화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주인공 역시 발밑에 깔린 동전처럼 무력하고 사소한 존재일 뿐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미국을 동경하여 동료조차 배제하려던 당대 지식인·중산층의 ‘내면화된 식민주의’의 자각, 그리고 그 ‘오인(誤認)’²²⁾에 대한 자기 환멸의 순간으로 이어진다. 인용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자각의 순간은 유사한 구조의 사건, 기의가 같은 기표들인 칫솔과 이브닝드레스, 새 동전의 배치와 연속성을 통해 다시 강조된다. 즉 가난한 아이들과 ‘나’를 구별해 줄 우월함의 도구라 여겼던 칫솔은, 미군에게 밀수품 취급을 받으며 의심받아야 했던 굴욕의 상징이었으며, 졸업파티에서 몸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넘어진 것은 아메리카니즘을 억지로 체화하려던 자신의 가련한 초상이었으며, 제인의 눈빛은 우월감 어린 동정이었던 것이다.

21) 이순, 『외인학교』, 『신한국문제작가선집 21- 이순』, 어문각, 1983, 180면.

22) 부르디외는 피지배 집단이 지배집단의 지배와 통제를 폭력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를 ‘오인’이라고 규정했다. 김영화,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교육과학사, 2020, 143-144면.

「외인학교」의 마지막에 한국어 교사가 마주했던 자각의 순간은 「보이지 않는 사람」(1980)에서 미군 지배 권력과 생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기지촌 미군부대의 한국어 강사 혜옥이다. 혜옥은 한국인이라 강사료가 반이라는 불공평함을 감수하고, 교사로서 양심도 저버리면서 생계와 학업을 위해 현실과 타협한다. 그러나 미국행을 통해 삶의 반전을 꿈꾸며 선택되기만을 기다리는 기지촌 여성들의 불안한 눈초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 타자화하여 바라보기만 했던 그들과 자신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뒤늦은 자각이다.²³⁾ 이 두 작품 모두 마지막에 자신의 오인을 자각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전후에서 1970년대 서구 선망과 상징적 폭력의 현실을 냉정하게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순은 서구 문화자본의 상징적 서열화가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1970년대 여학교와 여학생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려냈다. 「혜봉이」(1983)에는 미국 선교사 집에서 식모로 일하면서 습득한 서양식 생활 양식(요리, 양재, 화단 관리 등)을 자신과 자식의 문화자본이자 계층상승의 무기로 삼은 어머니와 그것을 인간의 교양과 품격으로 이해하고 성장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1970년대 서울의 한 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에는 계층 문제와 도농 문제, 서구 문화 사대주의가 묘하게 얹혀 있다. ‘나’는 시골에서 전학온 혜봉이를 처음 만나 큰 문화충격을 받는다. 혜봉이의 생기발랄한 목소리와 품격 있는 존댓말, 모녀가 맞춰 입은 분홍 원피스, 비틀즈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집의 비치파라솔과 직접 구운 과자 대접에서, 연탄장수와 고래고래 싸우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부러움과 수치심까지 느낀다. 혜봉이는 어머니로부터 이식받은 문화적 취향과 ‘품위’로 단번에 여학생들의 인기를 차지한다.

23) 이순, 「보이지 않는 사람」, 『소설문학』, 1980.8, 177면.

바야흐로 비틀즈가 이 한반도에 상륙한 시기였다. 대학생들 중 일부만이 빠져들어 있었던 컨트리 뮤직, 재즈, 로큰롤의 열병이 에프엠 개설을 타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무섭게 번져 나가고 있었던 참이었다. (중략) 아주 친해지기 전에는 동급생이라도 반드시 존대말을 쓴다는 혜봉의 말범도 둘레에 큰 감명을 주었다. 또 환하게 웃는 얼굴로 구름다리를 지나 학교로 들어온다든가, 관사의 창 앞에 앉아 있다가 교정을 지나가는 아는 얼굴을 향해 손을 흔든다든가 하는 서양식 제스처가 (중략) 근사하게만 보였던 건 신기한 일이다.²⁴⁾

혜봉이 어머니는 서구적 문화자본과 뒷거래를 통해 남편을 서울의 학교 교감 자리로 입성시켜 신분 상승까지 도모한다. 문제는 이런 모녀의 노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이다. 런닝셔츠 바람에 라디오를 끼고 가요를 듣는,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의 혜봉이 아버지는, 서구식의 교양과 세련된 태도를 체화시키지 못하고, 새 학교의 교감으로도 적응하지 못한다. 결국 명문대 출신의 젊은 독어교사와 갈등을 빚다가 품위상실을 이유로 권고사직 당한다. 한국식 학벌주의와 현실의 벽 앞에서 어설픈 서구 모방은 밑천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이 작품은 교사 임용조차 서구의 문화자본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 어설픈 흉내나 부당한 거래로는 현실의 계급장벽을 부술 수 없다는 씁쓸한 진실을 그리며, 아울러 서양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고급문화와 품위’로 둔갑하던 당대의 기만적 풍조를 비판하고 있다.

이순은 「혜봉이」에 이어,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하이틴 로맨스 『마지막 여름』(1981)에서, 당시 청소년들에게 퍼져있던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과 모방을 더 적극적으로 그렸다. 이 소설은 어린 딸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예술가 엄마, ‘자유로운 아내에게 환멸을 느껴 딸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보조자로서 현모양처 이데올

24) 이순, 「혜봉이」, 『백부의 달』, 고려원, 1989, 116면.

로기와 순결을 강요하는 큰엄마로 이루어진 가족 속에서 저항하며 성장하는 여학생의 이야기이다.²⁵⁾ 여학생사에서 출판된 녹색문고 중 하나로써, 당시 여학생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서구적 취향과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나타난다. 즉 영화와 팝송 같은 대중문화에서 서양 클래식 음악과 고전 명작, 미술 작품까지 “공통의 취향과 감수성”, 엄마의 부재와 강제된 훈육과 같은 자극적인 설정, 우연한 만남과 낭만적 연애와 같은 “극적이고 감정과잉을 유도하는 멜로드라마적 요소”²⁶⁾가 그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뉴욕으로 마드리드로 그 린랜드로 「브릿지 오버 더 트러블드 워터」와 「미스즈 로빈슨」과 「스카보로 웨어」를 들으며 나는 핑퐁 날아다녔다. 동경 타워 아래에서 금문교 위에서 백악관 앞에서 샹젤리제 카페 테라스에서 또 버킹검궁과 쉼매 위에서 나는 한 팔에는 사이먼 또 한 팔에는 가펑클의 팔을 각각 끼고 신나게 뛰고 웃고 했다.²⁷⁾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구에 대한 지식과 취향, 팝송 제목,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라이프스타일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작품과는 달리, 맹목적인 서구 선망의 문제와 자각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대 여학생들을 지배하던 서구 추수의 풍경이 더욱 구체적으로 또 다소 과장되게 묘사, 나열된다. 표피적으로는 개연성을 확

25) 당시 여학생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며 미래의 현모양처를 준비하는 존재, 통제 대상이 되는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하이틴 문화를 본격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향유하는 문화집단이 된 여학생들은 정권의 교육방침과 사회의 담론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거나 함몰되기보다 사회현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장해 갔다. 윤은순,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 한국여성사학회, 2020.

26) 김양선,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멜로드라마-잡지 『여학생』 소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24-1, 한국대중서사학회, 2018.

27) 이순, 『마지막 여름』, 여학생사, 1983, 151면.

보하고 당시 여학생 독자층의 취향을 맞추고 대리만족시키기 위해 이 소설의 상업적, 장르적 전략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찰 없는 나열과 강조는, 오히려 청소년의 대중가요와 팝송의 향유를 탄압해야 할 문화로 간주하고자 했던²⁸⁾ 기성세대 담론의 비판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른 시각의 접근도 필요하다.²⁹⁾

3. 시혜의 폭력과 낙인의 가시화

1970년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진학과 중학교 무시험 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 등으로 과밀 학습이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학급당 70여 명이 넘는 교실에서 정상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학력경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여학생수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여성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에 묶여있었고 여교사들 역시 내면화된 관습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순은 이 시기에 교육 현장에서 목격한 문제들, 김우중의 표현을 빌리자면 “묘사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³⁰⁾ 일들을 그려냈다. 일방적인 통제와 훈육, 부당한 물질적 거래와 부조리한 학교 운영, 성급한 서구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문화 지체 현상과 상징 폭력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볼 「화장지」(1975)와 「담임 선생님」(1985)은 서구 중심적 위생 담론과 금권주의적 교육풍토가 가난한

28) 1960-1970년대 팝송에는 현실적인 정치적 저항에서부터 낭만적 성향의 음악까지 다양한 철학적 경향성을 담은 문화가 내재했다. 1970년대 청소년층의 대중음악 향유 현상의 내면에는 이처럼 현실에 대한 저항, 기성세대와의 타협, 미래를 위한 모습에 다채롭게 뒤섞여 있었다. 정미량, 「1970년대 한국 청소년층의 대중음악 향유 현상과 그 함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8, 215면.

29) 1970년대 말 대학원을 배경으로 한 연재소설 『지하도시』에는 영미문학이론서와 개념의 지나친 노출과 반복이 나타난다. 당시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사대주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0) 김우중, 「이달의 화제 : 왜 써야만 하는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75.9. 326-328면.

피교육자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낙인찍고 소외시켰는지를 지켜본 교사의 자의식을 조명한 작품이다.

중학교 평준화 정책 실시 후, 학생 수용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각 학교는 재정적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재단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종교 사학의 과행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³¹⁾ 「화장지」는 한 미션스쿨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미국 선교회의 ‘서구식 근대화 압박’과 이를 맹종하는 사학 권력의 과잉 충성이 어떻게 1970년대 한국 서민 가정을 소외시켰는가를 폭로한다. 작품은 재단에 아부하고자 수탈을 자행하는 교장, 장학금을 매개로 그의 대리인이 되었으나 결국 화장지까지 훔쳐야 했던 가난한 학생회장, 그리고 이를 목격하고 교육자의 윤리적 책임을 고민하는 여교사를 축으로 하여, 학교가 규율 체제에 순응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상황과 그 내부 균열을 그리고 있다.

서사를 이끄는 핵심 모티프는 수세식 화장실 건립과 화장지 강제징수, 그리고 화장지 도난 사건이다. J 선교회의 정기 시찰 중 재래식 화장실 위생에 대해 “〈어린 양〉들을 〈거름더미〉 위에 방치하였다”고 문책을 받자, 교장이 미국에서 기부금을 받아와 수세식 변소를 완공하면서 갈등은 표면화된다. 이는 여학생의 ‘신체 관리와 청결’을 곧 문명화이자 종교적 훈육으로 삼았던 미션스쿨 특유의 규율 체제를 보여주며, 197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던 미국 선교회의 시혜적·계몽주의적 시선을 가시화한다.

“.....비위생적인, 아니 야만적인 그 재래식 변숫간을 볼 때마다, 그 악취 속을 드나드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교장선생님은 어린 양들을 거름더미 위에 방치해 두었다는 죄책감에 항상 눈물을 흘리셨고 철야기도마저 아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과 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중략)

31) 정무용,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9, 역사문제연구소, 2013.

“.....이러한 교장선생님의 숭고하신 뜻을 받드는 동시에 문화인의 긍지를 지키는 뜻에서 이 소중한 변소를 우리 몸같이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회장의 개회사는 열렬하고 길었다.³²⁾

그러나 이 심각한 문제는 교장 개인의 도덕적 결함과 과실로 덮이고 만다. 수세식 변소 완공 기념 행사장에서 학생회장의 과장된 표현과 긴 개회사, 학생과 교사들의 냉정한 분위기는, 재단의 비위를 맞춰 ‘기독교적 위생 근대성’의 정통 전수자임을 증명하려는 교장의 욕망과 태도에 거리를 두게 만든 것이다. 이어, 교장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통해 여린 학생들이 어떻게 상처받았는지가 드러난다.

당시 사립학교의 평준화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은 이른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명목하에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었고,³³⁾ 이는 계급적·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을 야기했다. 작품 속 교장은 청소도구 등 학교물품을 학생들에게 자비로 조달하게 한 후 학부모의 항의를 반자,³⁴⁾ “민주사회에 부응하는 민주학원의 건설”을 이루자며, “학생에 의한,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교”를 표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약자인 학생회장을 하수인으로 삼아 도서 수집, 온실화분 마련, 교장 생일 선물 증정 등을 주도하게 만든다.³⁵⁾ 학생자율이라는 명분 뒤에서 빈곤층 학생의 경제적인 취약성

32) 이순, 「화장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75.8, 175-176면.

33) 정무용, 앞의 논문, 132면.

34) 이순은 교사직을 그만둔 후, 찬조금품 유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교사가 되는 순간 모두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은 아닌 바에 선생들의 태도에서 100% 공정성을 바랄 수 없다”고 하며, 교육 현장에서 목격한 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순, 「초중고교의 찬조금」, 『제3의 여성』, 앞의 책, 122-124면.

35) 이는 박완서 「낙토의 아이들」에 나오는 수재의연금 모금 사건과 비교하여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의식만 키우고 실적만 강요하는 당시 분위기를 포착하여 보여준다. 홍인영, 「박완서의 1970년대 교육 세

을 미끼로 삼아 이루어진 기만적 행동의 결과이다. 학생회장의 이 길고 열렬한 개회사는 권력에 종속된 여린 학생의 씩씩한 단면이다.

관찰자인 교사 희숙은 학교의 비리를 목격한 후 도피성 전근을 고민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어리굴젓을 파는 학생회장 어머니의 빈곤한 현실을 목격한 후, 학생들의 처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갈등은 수세식 변기 사용법 지도와 화장지의 강제정수 과정에서 심화된다. 수세식 화장실 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60%나 되자, 이들에게 “문화지진아”라는 낙인까지 찍어 지도에 나선다. 1970년대 초중반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일상적인 위생 관념과 인프라는 서구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었고 대중 간의 격차도 컸다. 특히, 물질적 토대의 차이로 생긴 격차는 계급적 열등감을 심화시켰다. 희숙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집 변소〉라는 글을 쓰게 한다.

…… 요즈음은 누구나 다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점잖게 부르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집 변소는 인사말로라도 그렇게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변소라는 말도 과남하다.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릴 웃기시느라고 애기해주신 〈변소 분류법〉에 의하면 제3종 뒷간이라고 해야 명실상부해진다. 그런 변소만 쓰고 살아온 탓인지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 수세식 변소가 생기고 나서부터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 그건 분명히 화장실이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뒷간만 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신다. 그래서 내가 화장지 사게 돈 달라고 했더니 화장지가 뭐냐고 하셨다. 그래서 뒤지 말이라고 했더니 뭐 뒤지를 오십 원이나 주고 사? 원 살다살다 나중엔 별 미치다 뽕꾸가 날 소릴 다 듣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다 ……

(중략)

태 소설을 중심으로 한 비관적 읽기 교육 연구], 『우리말글』 106, 우리말글학회, 2025.

..... 어떤 때는 아침에 가고 싶은 걸 참고 오는 때도 있다. 그런 때 학교 변수가 만원이면 미친다. 그래도 집의 변수보다는 백배 천배 기분 좋다. 집의 변수 같은 건 꼴도 보기 싫다. 이담에 결혼하면 꼭 그런 변수가 있는 집에서 살 작정이다 ³⁶⁾

“제3종 뒷간”을 이용하며 살아왔다는 학생의 글쓰기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상징되는 이식된 근대화 규범이,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에 대한 수치심을 넘어 자기 모멸감, 자기 소외를 유발하는 상징적 폭력으로 작동³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매주 두 뭉치의 화장지를 강제징수하는 조치는 펄프 화장지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당대 현실(버스비의 3~5배에 달하는 가격)³⁸⁾에서 빈곤층 학생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화장지 도난 사건은 그런 생존 조건과 규율의 충돌에서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교장과 학생지도주임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교사에게 도난 색출을 위한 감시와 감금을 지시한다. 회숙은 학생들에게 도난 색출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만, 감시 첫날 새벽 화장지를 훔치러 온 학생회장을 직접 목격하고, 부조리한 권력에 짓밟히는 아이들 곁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남기로 결심한다.³⁹⁾

이처럼 ‘위생 근대화’의 상징이 빈곤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수탈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수세식 화장실과 화장지가 현

36) 이순, 「화장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75.8, 189면.

37) 김영화,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교육과학사, 2020, 145면.

38) 심혜진, 「이 물건, 언제 생겼지? 24. 화장지」, 『인천투데이』, 2020.4.13.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86>

39) 김우종은 이 마무리를 두고, 사물을 살피는 예민한 감각과 약간의 풍자와 비유가 섞인 표현 기법의 특출함뿐 아니라, 교사의 행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김우종, 「이달의 화제 : 왜 써야만 하는가」, 『현대문학』, 1975.9. 326-328면; 발표 당시에는, “발랄한 문장과 유머로 미션 사립학교장의 위선을 파헤친 작품”으로서, “펼치나 구성뿐 아니라 작가의 사회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철학적 진실성이 숨겨져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달의 문학」, 『중앙일보』, 1975. 8. 27.

실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는 탁월한 장치임을 보여준다. 번듯한 수세식 화장실과 화장지를 훔쳐야 하는 가난한 학생회장을 대비시키고, 공적 영역의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사적 영역에서 더러운 ‘감시와 수탈’을 행하는 것을 배치하여 강렬한 위생의 미장센을 완성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제목 “화장지”는 서구식의 청결, 기독교식 문명화가 여린 학생의 일상과 신체를 어떻게 억압했는지 보여주는 문학적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적 빈곤을 학생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치환하고 낙인찍는 내용은 「담임선생님」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금권교육 풍토에서 교사가 편견과 위선적 태도 때문에 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교육 기회마저 뺏아버린 사건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는 이야기이다. 『우리 언니』 연작 중 한 편으로, 연작소설 『우리들의 아이』의 가족관계 설정과도 유사하다. 주인공 진영은 시할머니 상가에서 시누이의 아이 ‘봄메’와 과거 자신의 학생이었던 ‘향이’를 떠올린다. 진영이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빈곤한 학생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 계급적 수치심과 열등감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교사도 학생도 모두 이에 무감각해진 상태이다.

학기 초가 되면 그 어느 학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복도에서 책가방을 든 채 어정거리고 있는 미등록생들이 있었다. 어떤 땀 겹에 질린 얼굴로 차마 지나가는 교사들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가여워지는 것이지만 미등록생 때문에 교무주임, 교감, 심한 경우에는 교장에게까지 불려 가 담달을 당하곤 하는 일을 생각하면 결국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 감상에 지나지 않다 여겨지게 되었다.⁴⁰⁾

극빈자도 아니면서 등록금을 내지 않아 “상습적 미등록생”으로 찍힌 향이는, 한 학부형이 전액 납부를 자처하고, 이 사연이 교육전문 주간지에

40) 이순, 「우리 언니 3회 : 담임선생님」, 『월간 2000년』 23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1985. 3.

실려 화제가 되면서 “거교적 미담의 주인공”으로 학교의 도덕적 위상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후원자가 파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대납을 떠안게 되자 향이에 대한 시선은 냉랭해진다. 그러나 향이도, 귀부인 같은 옷차림으로 학교에 온 향이 어머니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다. 이에 담임선생인 진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향이에게 “땃국 썩은 냄새가 난다”고 독설을 퍼부었고, 향이는 그 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진영은 빈곤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으로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가 된 것이다. 훗날 진영은 향이가 계모의 뜻대로 공장노동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향이의 무심하고 염치 없는 듯한 태도는, 계모 밑에서 또 학교에서 받은 차별과 학대, 소외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이자 생존전략이었음을 깨닫는다.

한편 진영은 시누이가 사는 구시가 아이들을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구별 지으려 한다는 것과, 이에 자신의 아이 봄메가 극빈자로 무상 교과서를 받았다는 사연을 듣는다. 시혜자의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수혜자를 무대 위에 세우고 낙인을 찍는 폭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향이의 계모와 달리 시누이는, 학교에 항의해 교과서를 반납함으로써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낸다. 진영은 두 아이의 일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성인의 존재, 교사의 책임을 재자각한다. 이 작품은 ‘향이’에게 낙인을 찍고 공장으로 내몬 가해자인 담임교사 ‘진영’의 반성적 회고와 죄책감의 고백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공간이자 학생을 보호하는 신성한 교육의 장임을 표방하면서도, 결국 빈곤을 이유로 낙인찍고 배제하여 개인적인 수치심과 소외감을 유발하는 기만의 공간이 되었음을 내부자의 목소리로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유신체제하의 학교, 규율과 통제의 공간

1970년대는 유신 체제와 새마을운동 등이 맞물리면서 국가주의 교육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다. 학교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의 생활화를 기본 목표로 덕목과 행동 지침을 정하고, 그 실천 사항인 일기 쓰기, 혼·분식 실천, 폐품수집, 자율저축, 자매결연활동, 자율적 애국헌금 등을 실행했다.⁴¹⁾ 당시 문교부에서는 장학사 시찰을 통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발하는 방식으로 일선 중고등학교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상적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나 안보와 규율을 명분으로 정당화했다.

「영하 4도」(1979)는 1970년대 한 여자중학교를 배경으로, 장학사 시찰로 상징되는 국가의 통제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사실적으로 다룬다. 작품은 생계를 위해 권력의 하수인이 된 방관자적 교사 혜숙을 서술자로 삼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양심적 교사 강경희를 대비시켜, 유신체제하 학교교육의 파행성과 지식인 주체의 공모성을 복합적으로 그려낸다. 제목 ‘영하 4도’는 당시 난방 허용 기준이라는 실제적 제약이자, 군사독재 정권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냉혹하게 경직된 교육 현실을 비유한다.

혜숙을 포함한 교사들은 “불시에” 이루어지는 장학사 시찰에 대비하여 대청소와 환경미화, 게시판 정비, 혼식 검사 등에 온 힘을 쏟는다. 장학사는 나라가 “준전시체제”에 있으므로, 후방에서 철저한 의식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영하 4도’라는 난방 조건 때문에 추위에 떨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이의 제기도 못한다.

일흔 명이 뻑뻑이 들어앉은 교실 그 교실이 뻑뻑이 들어앉은 교사 열셋 열넷 열다섯 아이들의 한겨울에는 길레 담근 찬물 속에서 빨개지는

41) 윤은순,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 한국여성사학회, 2020, 8면.

어린 손, 그 어린 손들이 아니면 한낱한시도 청소되지 못하는 오층 시멘트의 살벌한 그 교사 안에서 무슨 중뿔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유리창 뒤편 여학생이 삼층 아래로 추락, 즉사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밖에 연한 창유리는 닦지 않아도 좋다는 급급한 지시 사항이 내려질 뿐 아이들의 하늘을 향해 난 유리창의 먼지 더께를 말끔히 닦아낼 아무런 다른 방도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⁴²⁾

교사들은 장학사의 잦은 시찰과 통제에 길들여져서, 학생들에게 추락의 위험을 무릅쓴 창문 청소와 한겨울 찬물 걸레질을 서슴없이 강요한다. 납부금 수납물로 압박을 받으면,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어 부모를 압박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각 교실 게시판 중심에는 “〈충력안보 없는 곳에 적화야육 이룩된다〉는 표어 아래” “씩어가는 참혹한 얼굴 정면에 초점을 맞춘” “두 구의 어린이 시체 사진”이 걸려있다. 한창 예민할 소녀들의 일상 학습 공간에 생생한 죽음과 부패를 전시하여 정서적 공포를 주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의 죽음’마저 도구화하던 당시 반공교육의 현실을 알 수 있다.⁴³⁾ 해숙은 초기에 먹은 것을 게워 낼 정도로 거부감을 가졌지만, 점차 신체적·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유신 체제의 억압적 반공주의가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유린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장학사 시찰에서 혼식 이행 여부는 학교 평가의 중요한 잣대 중 하나였다. 1962년 11월 시작된 혼분식 장려 운동은, 1970년대가 되면서 장려

42) 이순, 「영하 4도」, 『세계의 문학』, 1979. 봄, 230면.

43) 1970년대 유신정권의 반공교육은 북한 침략 가능성을 상정한 안보교육으로 발전, 학교를 병영화하게 된다. 학교생활 전영역에서 반공을 강조했고 반공의 방식도 적대와 공포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김영석, 『모순의 근원과 대안 : 한국의 교육』, 경상대출판부, 2019, 243-245면; 또한 학교 환경도 철저히 유신이념의 생활화, 내면화를 내세우면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각종 알림판은 그 전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고려해 배치했다. 김정일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 1970년대』, 창비, 2016, 40면.

를 넘어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도시락 검사를 했고, 경제형편 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 오는 학생까지 혼분식 불이행자로 찍혀 가정환경 조사를 받고, 부모가 소환되기도 했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인격적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⁴⁴⁾ 이 작품에도 장학사 시찰에 대비한 혼식검사 사건이 나온다. 그런데 가난하여 평소 보리밥밖에 못 먹던 아이가 생일을 맞아 싸 온 흰쌀밥 도시락이 단속대상이 된다.

그 와글와글 위에 <우리는 혼식을 지키지 않았습시다>라는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피케트가 올라와 있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에워싼 구경꾼들을 헤치자 스무 명가량의 죄인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그중 두 명이 피케트의 양끝 손잡이를 하나씩 나누어 잡고 있었고 그 앞 복판에 아이가 하얀 쌀밥이 드러난 도시락을 두 손에 받쳐들고 서 있었다.⁴⁵⁾

피켓을 든 “죄인”으로 전락한 학생들의 모습은, 국가의 생명 정치 앞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그 신체 통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정부의 시책 완수를 위해 교사는 학생을 질책하고, 그 교사를 교장과 장학사가 층층이 감시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혜숙은 결국 이런 상황도 눈감으면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극성스럽게 청소를 시켜대며, 등록금 문제로 개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개의치 않는 뻔뻔한 교사가 되었고, 그 덕에 우수교사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런 공모는 새로 부임한 교사 강경희의 등장으로 균열이 생긴다. 시인 지망생이었다가 실패한 혜숙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생계를 위해 교사로서의 양심을 버린 자신의 선택을 자주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

44) 김경일 외, 위의 책, 43면.

45) 이순, 「영하 4도」, 『세계의 문학』, 1979. 봄, 229면.

다. 강경희는 학교의 강압적인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폐품 수집 할당량 제도의 부작용, 불온 뼈라 제출로 인위적 조작이 생기는 문제 등을 서슴없이 지적한다. 강경희는 자신만의 교육 방식을 고수하여 교무실의 “동네북”이 되며, 교육 지침을 무시하여 장학사와 크게 부딪친다. 이 일로 매일 70명씩이나 되는 학생 일기 검사를 도맡는다.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요구하는 것이, 검사를 받기 위한 위선적인 글쓰기로 이끈다는 생각에 회의적이었던 혜숙조차도 강경희의 편을 들지 않는다.

「일기를 검사하다니요? 이걸 야만이에요. 일일일선의 실천도 그렇지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어떻게 착한 일을 하나씩 합니까? 그렇게 착하게만 살 수 있는 세상에요? 선생님들은 하루의 한 건 이상 착한 일 건수를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애들더러만 하라니요. 더구나 그걸 일기에 써서 검사를 받게 한다니요. 애들은 하라면 하기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진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략)

일기 담당 교사란 대단한 횡액이었다. 당국의 지침을 골자로 시행안을 짜는 일이야 일도 아니었다. 문제는 일기 검사였다. 전학년 전학생의 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담당 교사의 손으로 일일이 점검하라는 당국의 지시였다.⁴⁶⁾

이 시기 일기는 검열이었고, 반성의 일상화, 통치이념의 내면화 강요였다,⁴⁷⁾ 학생들은 일기라는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 치유가 아니라 검열에 대비한 ‘모범적 내면’을 연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경희가 일기 검사

46) 이순, 「영하 4도」, 『세계의 문학』, 1979. 봄, 235-237면.

47) 1968년말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래 일기 쓰기 지도는 국가가 헌장 내용의 실천을 강제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유신시대에 한층 강화되었다. 허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학교의 역할」, 『한국사학보』 60호, 한국사학회, 2015. 450면.

를 담당하고 상담까지 하면서 상황은 바뀐다. 선행을 강요하는 규율의 도구가 학교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비판적 의식을 일깨우는 전복적 도구로 탈바꿈한다. 「화장지」에서 〈우리집 변소〉라는 글을 통해 이식된 근대성의 모순을 폭로했던 서사적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불편함을 느낀 교장은, 남교사 부족을 핑계로 강경회를 사직시킨다. 남편의 승진 실패로 학교에 남아야 했던 혜숙은 교장이 시키는 대로 권고사직 내용을 강경회에 게 전달한다. 혜숙은 이렇게 교장의 교활한 통제 방식에 순종하고 폭력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

이순 소설의 핵심 특징인, ‘자기기만에 대한 뒤늦은 윤리적 자각’⁴⁸⁾이 바로 이 파국의 순간에도 나타난다. 미뤄왔던 문제의 대면과 강렬한 자각이다. 차라리 파출부가 되겠다고 교직을 떠나는 강경희 앞에서 혜숙은 맹렬한 추위를 느낀다. 배려하고 도와주기느커녕 재능을 질투한 후배를 잘라내는 상황, 국가의 통제와 생업을 핑계로 진정한 교사 되기를 포기했다는 수치심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순간,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떠오른다. 혼식 안 했다고 벌 받는 아이 손을 잡고 교장실에 따지러 갈 때 “더욱 엉뚱한 일은 자기 손에 쥐여 있는 팔이 지금 겨우 배밀이를 하고 있는 아들이의 팔인 듯”(229면) 느꼈던 것처럼, ‘영하 4도’라는 기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가 동사(凍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엉뚱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정연한 논리나 단정을 피하고자 하지만, 국가가 강제한 규율 때문에 생일을 맞은 아이를 죄인 취급하고, 동사의 공포까지 느끼게 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의 분명한 고발이다. 그리고 이 섬뜩한 환각은, 생계유지를 핑계로 침묵하고 권력에 공모한 결과가 결국 미래세대의 비극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자각이기도 하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생계에만 목적을 둔 혜숙이 교사로 남고 올바른 교육에 힘쓴 강경희는 권고사직 당하는 아이러니는, 잘못된 현실을 알

48) 이상진, 「이순의 『우리들의 아이』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계층이동 욕망」, 『현대문학의 연구』

8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면서도 방관하고 공모했던 당대 지식인 계층을 향한 서사적 비판이자 자기고발로 기능한다.

5. 공모와 저항, 지연된 자각

이 연구는 이순의 학교소설을 대상으로 1970년대 급진적 산업화와 유신체제라는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 학교 공간이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어떻게 규율화했는지 살핌으로써, 1970년대 젠더와 서발턴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학교소설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했다. 또한 내부자의 시선에서 포착된 학교 문제에 중산층 여성작가인 이순의 세대 감수성과 사회적 책무 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1970년대 여성작가로서 독자성도 규명하고자 했다.

이순은 학교 현장에서 서구의 문화자본과 학력 자본이 일그러진 욕망과 구별 짓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외인학교」, 「보이지 않는 사람」, 「혜봉이」 등에서 그려냈다. 당대 지식인과 중산층의 ‘내면화된 식민주의’를 냉소적으로 폭로하고, 서구 문화자본이 교사 임용과 승진 등 비공식적 권력 구조까지 지배하였음을, 부당한 거래와 기만적 풍조로 얼룩진 학교 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화장지」, 「담임선생님」에는 서구 중심적 위생 담론과 시혜의 폭력, 과밀 학급과 평준화 정책의 재정적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던 상황에서, 구조적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치환하고 낙인을 가시화하던 학교 현실이 나타난다. 「영하 4도」에는 장학사 시찰로 상징되는 국가의 통제가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유린하고 있는지가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이순은 이처럼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판치던 교육 현실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포착하였고, 열악한 교육 환경과 계층 편차로 인해 학교가 건강한 미래세대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지점을 고발했다.

이러한 현실을 재현하는 핵심 축은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었다고 추측되는 여교사의 형상화와 결말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지연된 자각(뒤늦은 통찰)’이다. 주인공물로 등장하는 여교사는 체제의 폭력에 순응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무력한 소시민, ‘소심하고 이기적인 중간적 인물’로 형상화되거나, 사건의 핵심에서 물러나 관찰적 시선을 유지하는 서술자에 머문다. 또 대가족의 며느리로서 생계유지를 핑계로, 위로부터의 시찰과 감시, 학교의 제도적 폭력에 순응하여 ‘존재론적 알리바이’를 획득하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지점은 여교사라서 겪는 차별일 뿐,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낙인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방조한다. 그러나 바로 이 여교사의 시선에 포착된 존재들은, 가난을 숨기고자 권력에 복종하고 절도까지 하는 학교 회장(「화장지」)과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서 자기 모멸을 견디는 ‘문화지진아’들(「화장지」), 빈곤자로 낙인찍혔다가 다시 학교 미담의 주인공으로 이용당하고 담임의 모욕적인 비난에 대해 무표정과 태연함으로 방어하는 ‘향이’(「담임선생님」), 생일날 혼식 불이행으로 죄인으로 낙인찍힌 여학생(「영하 4도」), 학교 폭력에 대해 글쓰기를 통해 미시적 저항을 시도하는 교사(「화장지」, 「영하 4도」)이다. 정상적인 학교에서라면, 당연히 돌보고 지켜주고 존중해야 할 존재들을, 여교사의 마음에서도 시선에서 놓지 않은 것이다.

이순은 또 이 무력한 여교사의 뒤편에 반성적 자아(그림자)를 대립시킴으로써, 이들의 모습을 촘촘하게 관찰하고 갈등하며,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환멸과 죄의식을 폭로하는 마무리로 이끈다. 「외인학교」와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는 그간의 행위가 문화자본의 서열화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한 결과였음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환멸과 철저한 패배감을 느낀다. 「화장지」에서는 부조리한 욕망을 지닌 교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영하 4도」에서는 이상적인 신념을 지닌 타자(교사)와의 대비를 통해, 주인공은 자기기만에 대해 반성하고 실존적 결단을 향한 긍정적 의지를 발견한다. 이들의 무력함과 수동성, 윤리적 무감각과 기만적 태도는, 당시 다른 여

성작가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여기는 의미층⁴⁹⁾을 숨기거나 흐리게 만드는 여성적 글쓰기의 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행간에서 왜곡되고 은폐된 흔적을 찾아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 낼 필요가 있다. 즉, 이런 주인공의 형상화는 마무리의 지연된 자각을 극대화하는 서사적 장치이며, 이 자각은 단순한 서사적 반전이나 관념적 이상화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내부자로서 교사의 윤리적 한계와 역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는 작가의 생애사적 기록에서 확인되듯, 1970년대 중산층 여교사이자 지식인으로서 작가가 느꼈던 '역사적·윤리적 부채감'이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이순의 학교소설은 1970년대 여학생과 여교사가 약자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공모와 저항, 희생의 서사를 통해 학교라는 미시적 제도 공간의 상징적 폭력과 계급적 낙인화의 지형을 고발하고, 여성 중등 교육 현장의 내부자이자 주변인의 시선으로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1970년대 한국 여성 서사의 지평을 교육 제도 비판으로까지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9) 가부장제가 내면화된 대가족의 만능느리로서, 감옥에서 해방을 맞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월남민으로서, 체제에 저항하여 기자직을 그만둔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진 여성작가로서, 이순이 유신체제의 감시와 통제의 현장인 학교 문제를 안으로부터 비판하여 드러내는 일은 심리적으로 버거운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겉으로 가부장적 문학 관습과 국가권력에 순응하면서 전복시키는 이런 글쓰기는 당대 지식인 여성작가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특징으로, (이선미, 「1960년대 ‘자유’ 담론과 미국 - 박순녀, 손장순, 박시정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논리적 비약이나 과잉 해석의 결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순, 「엄마의 교습」,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72.10.
_____, 「화장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75.8
_____, 「영하 4도」, 『세계의 문학』, 1979. 봄.
_____, 「보이지 않는 사람」, 『소설문학』, 1980.8
_____, 「외인학교」, 『신한국문제작가선집 21- 이순』, 어문각, 1983.
_____, 『마지막 여름』, 여학생사, 1983.
_____, 『제3의 여성』, 어문각, 1983.
_____, 「혜봉이」,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3.9./ 『백부의 달』, 고려원, 1989.
_____, 『우리 언니』, 『월간 2000년』 21-30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1985. 1-10.
- 김경일 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 1970년대』, 창비, 2016.
김영석, 『모순의 근원과 대안 :한국의 교육』, 경상대출판부, 2019,
김영화,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교육과학사, 2020.
피에르 부르디외 · 장 클로드 파세롱, 이상호 옮김, 『재생산 :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2003.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 김양선, 「취향의 공동체와 소녀들의 멜로드라마 - 잡지 〈여학생〉 연구」, 『대중서사연
구』 24-1, 한국대중서사학회, 2018, 229-257면.
김우중, 「이달의 화제 : 왜 써야만 하는가」,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75. 9. 326-328
면.
김우중 외, 「이달의 문학」, 『중앙일보』, 1975. 8. 27.
백승철, 「이순- 섬세한 문장과 재치있는 구성」, 『한국단편문학전집』 27, 금성출판사,
1990,
서나래, 「자모들의 치맛바람 :1960년대 교육계 이슈와 어머니 표상」, 『한국교육사학』
44, 한국교육사학회, 2022, 91-123면.
윤은순,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 한국여성사학회,
2020, 1-36면.
이광훈, 「반짝이는 언어의 연금술」, 『소설문학』, 소설문학사, 1980.8. 154-158면.
이동재,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교육 현장과 교사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2, 225-254면.

- 이상진, 「이순의 『우리들의 아이』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계층이동 욕망」, 『현대문학의 연구』 8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161-194면.
- 이선미, 「1960년대 ‘자유’ 담론과 미국 - 박순녀, 손장순, 박시정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17-452면.
- 이선옥, 「1970년대 여성문학-여성전업작가의 등장과 다양한 글쓰기 주체의 성장-」, 『개념과 소통』 26, 한림과학원, 2020, 78-79면.
- 이창익,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교육원조와 교육계의 동향」, 연세대 석사논문, 2005.
- 이태숙, 「분단의 이태올로기와 교육장으로서의 학교-전상국의 학교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3, 국어국문학회, 2015, 249-280면.
- 정무용,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 『역사문제연구』 29, 역사문제연구소, 2013, 111-135면.
- 정미량, 「1970년대 한국 청소년층의 대중음악 향유 현상과 그 함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1,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8, 197-239면.
- 최원식, 「성장소설의 가능성」, 『오늘의 한국문학 33인선 21 - 이순』, 양우당, 1991, 447-452면.
- 허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학교의 역할」, 『한국사학보』 60, 한국사학회, 2015, 425-455면.
- 홍인영, 「박완서의 1970년대 교육 세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읽기 교육 연구」, 『우리말글』 106, 우리말글학회, 2025, 31-70면.
- 김명래,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 23」 한남철 ‘바닷가 소년」, 『경인일보』, 2014.7.3.
- 심혜진, 「이 물건, 언제 생겼지? 24. 화장지」, 『인천투데이』, 2020.4.13.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86>

<Abstract>

The Landscape of Symbolic Violence and Stigmatization:

—Schools in the 1970s Depicted in Lee Sun's Fiction

Lee, Sangj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ciplinary mechanisms and aspects of symbolic violence in the educational field depicted in Lee Sun's school novels within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the Yushin regime in the 1970s, thereby illuminating her distinct originality as a female writer of that era. Drawing on her experience as a teacher at a girls' school during the 1970s, Lee Sun delicately weaves the issues of the school setting into narrative form. She cynically exposes the distorted desire for upward mobility and internalized colonialism induced by Western cultural capital and Americanism (*Foreigners' School*, *The Invisible Person*, *Hye bong-i*), while portraying a school reality in which structural poverty is reduced to individual moral flaws and class stigma amid transplanted hygienic modernity and the violence of benevolence (*Toilet Paper*, *Homeroom Teacher*).

Furthermore, she captures the complex position of teachers who, while complicit with the system under nationalistic disciplinary power,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resistance through subtle ruptures in daily life (*Four Degrees Below Zero*). Although the protagonist-narrator of these school novels is a helpless, passive teacher and a hypocritical intellectual, she eventually arrives at a "delayed awareness" through an internal narrative

in conflict with her reflective self. This "delayed awareness," repeatedly appearing in the endings, reveals a self-reflective quality that confesses a historical and ethical sense of debt felt as an insider teacher.

By exposing the symbolic violence of the school as a micro-institutional space through narratives of collusion, resistance, and sacrifice that female students and teachers were forced to navigate as the vulnerable, Lee Sun's school novels hold significant value in expanding the horizons of 1970s Korean women's literature through their delicate rendering of inner conflicts and wounds from a female perspective.

Key words: Lee Soon, 1970s, School Education, Americanism, Disciplinary power, Control, Symbolic violence, Delayed awareness

투 고 일: 2026년 7월 21일

심 사 일: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26년 9월 28일